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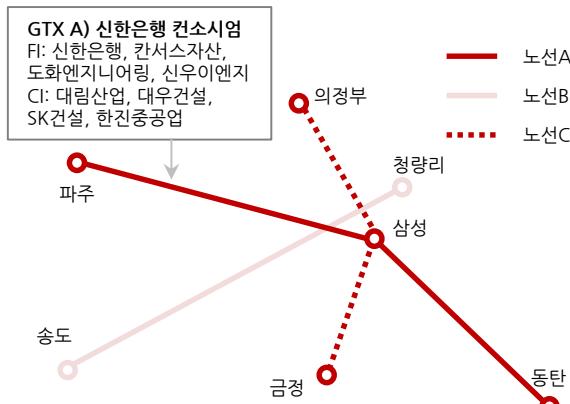
- ✓ 정책 앞에 사업 속도가 더딘 GTX, GBC
- ✓ GBC 수도권정비심의, 이연될 가능성 확대
- ✓ 민자SOC 정책 불분명, GTX 추가 발주 속도 더딜 것

# Issue Comment

## [건설] 정책 앞에 발목이 묶인 사업들

- 국토교통부는 11월초 서울시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하 GBC) 안건이 빠진 11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일정을 전 달했음.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현대차가 투자한 한전 부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1만m<sup>2</sup> 이상 대지에 새로운 인구유발시설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임. GBC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 7월 총 세차례 수도권정비위에 올랐으나 인구 유입 유발 효과 분석 및 저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함. GBC로 인한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조장에 정책적 해석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12월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 경기광역철도 (이하 GTX)의 경우 A 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사업 속도에 박차를 기해 빠르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B, C 노선의 발주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 두 노선 다 예비타당성검토 마무리 단계로 C 노선은 연내, B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 검토 결과가 나올 것. GTX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더욱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민자적격검토 등을 거치고 발주가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SOC에 대한 기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GTX 추가 노선에 대한 발주 역시 다소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GTX 노선 개요



### 현대차 GBC



자료: SK증권

자료: 각종 언론, SK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